

1악장

고전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서주 없이 호른, 바순, 비올라, 첼로 등의 목가풍 선율(1주제)로 시작하는데 교향곡 2번과는 D장조란 조성도 같고 작곡 시기와 장소도 비슷하여 그 연관성이 느껴진다. 악상은 서서히 달아올라 곧 강렬한 합주가 이어지고 긴장감 속에서 독주 바이올린도 등장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A장조의 2주제는 독주 바이올린이 매우 부드럽게 연주한다. 전개부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이미 나타난 주요 주제들을 발전시켜 연주한다. 재현부는 1주제를 연주하는 관현악의 힘찬 합주로 시작하여 카덴차로 연결되며 1주제가 나타나는 코다를 거쳐 웅장하게 마무리된다. (1악장의 카덴차는 앞서 설명했듯 요아힘의 것이 가장 유명하며 바이올리니스트 루지에도 리치의 경우는 자신의 녹음[Biddulph]을 통하여 부조니, 아우어, 이자이, 크라이슬러, 하이페츠, 밀스타인 등이 작곡한 16개의 카덴차를 소개하고 있다.)

2악장

브람스의 영감으로 가득 찬 아다지오의 2악장은 서정성이 풍부하다. 시작부터 감미롭고 부드러운(*dolce*) 오보에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음반에 오보에 주자의 이름이 따로 명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점이 특별한 시도였는지 19세기 바이올린계의 거장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이 부분에 대해 “훌륭한 작품이란 건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청중들이 오보에 선율을 들을 때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무대에 서 있어야 하는 나는 얼마나 무미건조한가.”라는 언급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곡 구석구석을 미묘하게 누비며 진정한 생명을 피어오르게 만드는 악기가 바이올린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오보에의 긴 선율에 호응하여 독주 바이올린이 등장한 후 오케스트라 사이를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꿈결 같은 악장이지만 고상함이 넘쳐흐르는 와중에도 악상은 변화를 거듭하여 때로는 걱정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독주자들의 뛰어난 기량과 정서가 요구되는 악장이기도 하다.

3악장

마지막 3악장은 개성 강한 론도형식으로 악장을 지배하는 주제가 뜨겁고 격렬하다. 바이올린이 주주제를 연주하면 이를 전체 오케스트라가 받아서 반복한다. 여러 부주제들이 등장하지만 시종일관 론도 주제가 재등장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잔뜩 고조된 피날레는 화려하며 작품의 위상에 걸맞게 잠시 숨을 고른 후 나타나는 강렬한 종지가 압권이다.

글 | 송진명 (음악 칼럼니스트, 치의학 박사)